

4.13 선거 RUN·RUN·RUN

최형재 예비후보 "노인 기초연금 인상"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최형재 예비후보(전주 을)는 16일 삼전 1동 직



신자봉사단과 양지노인복지관을 방문 해 기초연금인상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최 예비후보는 "지난 14일과 15일 치러진 경선을 통해 전북도민들이 정치변화를 열망하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이 여세를 몰아 4·13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관에서 최근 더민주가 10대 정책으로 발표한 정책 중 하나인 '소득하위 70%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인상' 공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했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이번 공천 경선이 뜨겁고 치열했던만큼 더욱 더 시민속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눈높이를 맞추는 정치를 펼치겠다"며 "최 예비후보의 소신에 의해 첫 일정을 이족(직접자 봉사단 양지노인복지관)으로 잡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정영주 기자

강팔문 예비후보 VR선거캠프 해외 큰 호응

강팔문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이하 강후보)가 16일 오전 8시(미국 현지시간 오후 7시)에 세컨드라이프 내 강팔문 VR선거캠프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익산과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문화권을 전 세계인을 상대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컨퍼런스에 미국, 중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약 40여명이 참가했고 참가자중 캐티 베리(미국 샌프란시스코 거주, 26세)는 "평소 한국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익산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어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해 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 세계인의 높아진 관심에 있다. VR선거캠프 개설 이후 일일 방문자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하여 3,400(3월 15일 기준)을 돌파하고, 세컨드라이프 내 'KOREA' 검색 순위 5위로 단숨에 뛰어 오른 상황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강 후보는 "젊은세대에 정책을 친근하게 홍보하고 양방향 소통을 위해 개설된 VR선거캠프에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익산을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게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전도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영환 기자



박민수 예비후보,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처분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국회의원(전주)이 전북선관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박민수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과태료 금액은 아직 미확정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할 경우 출처와 보도 일자, 조사 기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했지만 이번 사안에는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인만큼 공식선거운동에 따라 후보직 박탈 등 박 후보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위법한 행위는 인정됐다. 한편 박 후보측은 중앙당의 공식 여론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국회 일반 전화번호와 선거용 전화번호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 청년비례 최유진, 후보직 자진 사퇴

더불어민주당 최유진 청년비례 경선 후보가 16일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비례대표 후보 자격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급한 마음에 특정한 의견을 거부하지 못했던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실수고 잘못"이라며 "의정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준 많은 청년동지들과 선배들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더민주 당직자로부터 자기소개서 철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저는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민의당 쪽에서 동의도 받지 않고 발기인 명단에 나를 포함시켰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성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신인' 하정열이나 '관록' 유성엽이나

(더민주)

(국민의당)

Report 제20대 총선 격전의 현장을 찾아 - ⑦ 정읍고창

정읍고창은 선거구 재획정으로 지난 1985년 이후 31년만에 통합됐다. 이 때문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들 간 경쟁이 불거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정읍 유권자는 약 9만여명, 고창 유권자는 5만여명 정도로 정읍지역의 유권자가 4만여명 정도 더 많다. 정읍 지역은 하정열, 유성엽, 김태룡 후보가 고창 지역은 이강수, 김만균 후보가 뿌리를 내렸다. 정읍고창은 국민의당 유성엽(66) 예비후보의 3선 도전이 관전 포인트다. 그동안 정읍고창 선거구는 내리 3선은 없었다.

유 후보는 지난 11일 정동영(전주병), 김관영(군산)과 함께 단수 추천됐다. 일단 유 예비후보는 19대에서 무소속으로 여의도에 입성할 만큼 탄탄한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유 의원은 짙은 개혁성과 강한 추진력, 두터운 지지기반이 강점이다. 유 의원이 정읍고창 선거구를 수성한다면 지역내 연속 최다선의원이라는 이름을 올리는 것과 전북 거물급 중진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유 의원은 당선되면 힘 있는 3선 의원으로서 중앙에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며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읍고창 선거구는 주목되는 이유가

유 의원, 강한 추진력 두터운 지지기반 강점

육군 소장출신 국방전문가 하 후보 전략공천 내세워

이강수 전 군수도 무게감

또 하나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하정열(64) 예비후보와의 대결이다. 하정열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9호이며 육군 소장출신의 국방전문가이다. 유 의원이 계파정치 청산이라는 명분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자칫 배신자라는 낙인 등이 찍힐수도 있고 이러한 부담감이 민감한 본선 판세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 정읍고창 선거구는 타 선거구에 비해 경선 경쟁이 뜨겁지 않다. 오히려 김태룡(59), 이강수(64), 김만균(59) 등 3명의 무소속 바람이 거세다. 특히 이강수 후보의 경우 고창군수 3선을 할 만큼 무게감을 자랑한다. 이 전 군수는 고창지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점점 세를 확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전, 정읍신문 대표이사를 역임한 김태룡 예비후보는 그동안 끈끈한 친화력을 바탕으로한 지역 토박이로서 이번 총선에서 대반전을 노리고 있다. 최근까지 후보를 정하지 못하다가 추가 공보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성균(62) 예비후보의 선전도 기대된다. 여당 지지세가 취약하다는 점을 파고드는 틈새 전략을 통해 어느 정도 득표율이 나올지 주목된다. /신광영 기자

"국내 수출입 물동량 증가 속 군산항은 정체"

박재만 의원, 도의회 5분발언서

"항만전문가 부재 원인" 지적 무역항 경쟁 노력 필요 주문

장학수 의원, 전주 서남권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지연 따져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효자동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항만전문가 부재, 수화여행단 유치 위한 예산 확충, 농촌관광 하드웨어 구축 신중 등을 거론했다. 이날 5분발언은 장학수(정읍), 박재만(군산), 최영일(순창), 김현철(진안) 의원이 나섰다. 장학수 의원은 전주 서남권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설치 지연 이유를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2010~2014년) 효재1~4동 인구가 9만3,369명에서 11만1,109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읍 김제, 부안, 고창 등을 방문하려는 이 지역 주민들은 효자동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문제가 시급하다. 지난해 12월 설치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도 미뤄지고 있다"며 "수개월째 공사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재만 의원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 추세지만 군산항은 정체라며 항만전문가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항만법이 신설됐지만 현재 파견직 공무원 1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 담당 파견직 공무원이 돌아가면 다시 전문가를 찾아야 하고 관련 업무는 처음부터 파악해야만 된다. 국내 무역항간 치열한 경쟁구도속에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영일 의원은 전북 수화여행단 유치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예산편성 규모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화여행단 유치는 경제적 효과 달성은 물론 전북 이미지 제고 등 향후 잠재적인 재방문 효과가 있다. 사업에 산을 대폭 확충해 제반 효과를 극대화 해 야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예산확충을 통해 전국학교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강화, 코스설계 및 상품개발 대변화, 수화여행전담지도사 근무 여건 개선, 관광메케팅종합지원센터내 담당인력 확충 등을 제안했다. 김현철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전 지역으로 일부 은혜적 나눠주기식 하드웨어 구축사업시행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6기 들어 농촌관광거점마을조성(420억원), 생태관광지육성(1,022억원) 등이 대표적 나눠주기 사업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준비가 안돼 인태 대책까지 우려 사업비낭위에 있다. 시군에 똑같이 나눠주는 사업을 위한 사업은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광영 기자

"고향기부제 도입 시급"

양성민 도의원 촉구

양성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16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했다. 고향기부제는 기부금액의 일부를 지방에서 공제하지만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



양 의원은 "경제활동유입도 도시지역

리, 국제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차별성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현행제도 안에서 국제의 지방세이점으로 지방자치를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경제활동유입도 도시지역

자치단체 세수는 증가하지만, 아들을 키워낸 고향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고향기부제도를 도입해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정책선거가 실종된 4·13 총선에서 새로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이 정책공약으로 선택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유성엽 친동생 새누리 유재길 예비후보, 서울 은평을 출마

전북 출신 형제 국회의원 탄생할까?

전북 출신 형제(兄弟) 국회의원이 탄생할까. 새누리당 유재길(48) 국회의원 예비후보(서울 은평을)가 지역 정가 호사기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유 후보가 5선인 이재오 의원을 누르고 단수 추천을 받은 것도 관심이지만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정읍고창)의 친동생이기 때문이다. 유재길 후보가 형인 유성엽 후보와 같이 다르니 여색한 분위기가. 유성엽 후보는 동생의 정치 시작을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격려하고 있다. 최근 유성엽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동생의 정치 시작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왕 나선 길에 상처받지 않고 지지 받고 잘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유재길 후보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이 새누리당 텃밭임을 감안하면 형제 국회의원이 탄생 가능성이 높으니 이래저래 제20대 총선의 큰 관심거리

다. 특히 유재길 후보는 현재 전한주시 파로 분류되고 있지만 1980년대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을 내세운 친북성향 운동권자였다. 정에서 주목받는다. 사실 주사파 이미지는 잘못하면 소위 '불순분자'로 비치기 쉽다. 이런 그가 어떻게 국회의원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보수적인 새누리당에서 유 후보는 과거 학생운동이 내세웠던 목표와 방법의 커다란 오류를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한총련과 학생운동 개혁) 헌신적으로 실천했다. 또한 그는 13년간 중국에서 북한자유화운동을 펼치는 등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유 후보는 지난 2015년 3월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생활을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자치단체 세수는 증가하지만, 아들을 키워낸 고향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고향기부제도를 도입해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정책선거가 실종된 4·13 총선에서 새로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이 정책공약으로 선택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전주시의회 현창의정활동

행정위원회, 월드컵경기장 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강동화)가 16일 2017 FIFA U-20 월드컵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 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U-20월드컵추진단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살펴본 데 이어 이날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경기장의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보는 등 시설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했다. 의원들은 "차질 없는 대회 진행을 위해 무엇보다 경기장 시설의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사업계획에 따라 경기장 전관람 조정 등 시설 보강과 편의시설 보수 등이 기간 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강동화 위원장은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U-20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 전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대회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 축구동호회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북한위 "맑은물공급 차질없게"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현덕)가 16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맑은물공급사업 공사 현장을 찾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의원들은 팔달로 신한은행, 금암동 주민센터, 거성고속먼진 1차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수도 불용관 철거작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공사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의원들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공사 때문에 차량 정체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덕 위원장은 "이번 맑은물공급사업을 통해 상수도관의 효율적인 관리뿐 아니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맑은 공사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문경위, 전주푸드직매장 현장활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혜숙)가 16일 전주푸드직매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신축부지, 리프트롤러스케이프장 등을 현장 방문하며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장한 전주푸드 직매장(송천동 옛 예비군 훈련장 인근)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민들이 직매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 등을 없는지 확인했다. 박혜숙 위원장은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주푸드 직매장과 체육 시설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바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